

#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보미  
경북전문대학 간호학과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Male University Students'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Bo-Mi Kim  
Dept. of Nursing, Kyungbuk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A시 소재의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200명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자아존중감, 가정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자아존중감, 가정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 성교 경험이었으며, 데이트 성폭력 인식을 나타내는 전체 설명력은 54%이었다. 연구결과는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데이트 성폭력 인식 태도와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가정 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남자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male university students'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200 male university students in A city from February 1 to 14, 2017.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t was found that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are Self-Esteem, Family Violence, Sexual Assertiveness, Permissive Levels of Dating Violence. Meaningful variables that influenced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are Self-Esteem, Family Violence, Sexual Assertiveness, Permissive Levels of Dating Violence, and Sex. The total explanation power indicating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was 54%. The results of this study based on the factors influencing male university students'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will be fundamental material for the related study regarding good attitude in recognition of it to decrease Dating Violence.

**Key Words** : Self-Esteem, Family Violence, Sexual Assertiveness, Permissive of Levels of Dating,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Male University Students

Received 27 April 2017, Revised 30 May 2017  
Accepted 20 June 2017, Published 28 June 2017  
Corresponding Author: Bo-Mi Kim(Kyungbuk College)  
Email: point99930@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8월 까지 발생한 사건 가운데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가 '연인관계'인 경우는 총 41,687건으로 집계되었다. 또 한해 데이트 폭력 평균 건수는 7,355건으로 이 중 살인사건은 645건으로 집계되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3일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함을 뜻하고 있다[1]. 이와 같이 데이트 성폭력은 더 이상 연인간의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2].

데이트 성폭력은 결혼하지 않은 커플 중 한 구성원이 데이트 관계의 다른 상대방에게 신체적· 성적 학대 및 언어적 학대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3], 비교적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4].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은 신체적, 성적, 비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우울 및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사회적 기능수준의 저하 등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또한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대상자들에 의해 솔직하게 토출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며[4], 더 나아가 발생하는 위협을 예방하여야 한다. 대학생의 시기는 대학생들은 청년기로 분류되며 정체감 확립과 사회성 발달[6], 환경변화에 익숙해지는[7, 8] 시기로, 이때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위험도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개념은 자아존중감으로[4],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태도이다[9].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원치 않는 성 접촉과 이성교제 간의 성 접촉의 경험에 노출이 되기 쉽다[10].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성생활 노출이 비교적 적으며, 상대방의 성 관련 의사를 존중해준다고 보고되고 있다[11]. 또한 자아존중감은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어[4], 본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변수로 연구하고자 한다[4].

가정폭력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폭력을 의미하며[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구성원 중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3]. 이러한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자녀는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

방식으로 폭력을 받아들이게 되며 성인이 되고 난 후 모방하게 되므로[14],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이성교제 시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변수임을 밝히고자 한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며,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기술로[11], 성적 자기주장은 데이트 성폭행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구되고 있다[4]. 하지만 최근까지 성적 자기주장 측정도구가 남녀 구별치 않고 측정함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웠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통해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행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는 데이트를 하는 동안 이성 친구 간 폭력을 얼마나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으로[16], 신체적, 언어적, 성적인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는 허용적인 폭력과 비 허용적인 폭력으로 나뉘게 되는데, 비 허용적인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며, 허용적인 폭력은 자신이 신체적 위협에 처할 때 방어적인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당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16]. 이처럼 폭력을 허용적으로 느끼는 반면 폭력적 상황을 점차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사회문화적으로 경험하고 노출하는 폭력의 형태가 남녀 다르게 나타나며, 남자의 경우 이성교제 중 여성보다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상 성폭력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이성교제 간 폭력 허용도를 의미 있는 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나 가해 당시 그 행위가 데이트 성폭력 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트 폭력을 피해자나 가해자가 모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관계나 성 접촉으로 인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개인적인 성문제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13]. 하지만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입고[14, 17], 성폭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활태도와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여학생 보다 성적 충동을 억제 하는 능력이 떨어 지면서[18], 성 행동을 더 많이 표출하는 남학생을[19]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정도를 알아보고,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과의 관계[14], 데이트 성폭력 실태와 예측요인[4, 16], 여대생의 피해 경험[20]이 있었으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혼 남성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을 본 연구[21]가 있었지만,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적행위와 폭행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를 연구해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의 시기는 자신의 정체감이 완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실천적 교육과 정책에 노출된다며,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 자아존중감, 가정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 허용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며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을 바람직한 인식태도를 형성하는 데이트 폭력의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는 연구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인식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정 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정 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의 정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A시 소재의 남자 대학생이며 20세 이상 27세 이하의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여 2017년 2월 1일부터 동년 2월 14일 까지 자료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220명으로,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의 서면 동의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해 G\*Power3.1 progra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0.25, 검정력은 0.8로 설정하여[22] 계산하였을 때 200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20부를 배부 하였고, 질문한 설문지에 대한 답변 중 미 회수된 설문지와 부적절한 응답을 한 2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00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 6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가정 폭력 경험 10문항, 성적 자기주장 14문항,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 8문항,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10문항으로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2.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23]가 제작한 도구를 Jean[2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5문항), 부정적(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Jean[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 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7$ 이었다.

#### 2.2.2 가정 폭력 경험

가정 폭력 경험 측정도구는 Straus[26]의 PCCTS(The Parent-Child Conflict Scale)척도를 Lee[14]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정서적 폭력과 신체폭력을 경험했는지를 질문하는 총 10문항 5점 Likert 척도로서 가정폭력 경험 '전혀 없음' 0점

부터 '2-3년에 한 두번' 1점, '일년에 한 두번' 2점, '한달에 한 두번' 3점, '주 1회 이상' 4점의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폭력 경험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Lee[1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3$ 이었다.

### 2.2.3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 측정도구는 Kim[15]가 개발한 남자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합리적인 성행동 거절과 거부(4문항), 안전한 성행위를 위한 신념(4문항), 성행동 의사표현(4문항), 자위(2문항)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4$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6$ 이었다.

### 2.2.4 이성교제간 폭력허용도

이성교제 허용도 측정도구는 Foo & Margolin[27]의 폭력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를 Nam[1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8가지 상황아래에서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인지 아니지를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Nam[13]의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 2.2.5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측정도구는 Sugar man[26]이 개발하고 Kang[20]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데이트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그 행위가 데이트 성폭력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도구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을 인식하는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ang[20]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1$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9$ 이었다.

## 2.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을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t-test 또는 ANOVA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정 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평균 평점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정 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와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윤리 교육 이수 후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연구대상자의 자의에 의한 참여로 서면 동의 후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조사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 후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처리 시 개인 식별정보를 암호화 하였다.

## 3.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데이트 성폭력 인식의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은 25-26세 48명(24.0%), 종교는 무교가 114(57.0%), 학년은 2학년이 46명(23.0%), 전공은 인문사회 계열이 72명(36.0)로 가장 많았다. 성교 경험은 있다 195명(97.5%), 없다 5명(2.5)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에게 폭력 가해 경험은 없다 174명(87.0), 있다 26명(13.0)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폭력 인식도의 정도는 성교경험( $t=-3.20$   $p=.001$ ), 이성 친구에게 폭력 가해 경험( $t=-2.71$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정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허용도, 데이트성 폭력 인식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의 평균평점은 3.56 ±0.37 (척도 범위: 1~4), 가정폭력 경험 정도의 평균평점은 2.62±0.64 (척도 범위: 1~5), 성적 자기주장 정도의 평균 평점은 3.28±0.69 (척도 범위: 1~4)으로 나타났다. 이성 교제 폭력 허용도 정도의 평균평점은 2.08±0.89 (척도 범 위: 1~4),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정도의 평균평점은 4.26±0.36 (척도 범위: 1~5)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가정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허용도, 데이트성 폭력 인식의 관계

대상자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자아존중감은( $r=.58, p<.001$ ),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가정폭력 경험은( $r=-.52, p<.001$ ),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성적 자기주장은( $r=.38, p<.001$ ),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는 ( $r=-.40, p<.001$ )와 같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Table 1> Degree of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 (n=2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M ± SD	t or F	p
Age(yr)	19-20	47(23.5)	36.26±6.08	0.78	.365
	21-22	38(19.0)	37.08±6.12		
	23-24	42(21.0)	37.00±5.09		
	25-26	48(24.0)	37.01±7.03		
	≥ 27	25(12.5)	36.98±7.11		
Religion	None	114(57.0)	37.25±6.94	1.46	.220
	Christian	26(13.0)	37.23±6.58		
	Catholic	24(12.0)	36.99±6.01		
	Buddhism	26(13.0)	36.94±5.97		
	Other	10(0.05)	36.97±6.00		
Grade	1	45(22.5)	38.98±7.36	3.32	.720
	2	46(23.0)	37.16±8.26		
	3	44(22.0)	37.00±5.29		
	4	42(21.0)	38.00±6.03		
	Other	23(11.5)	38.06±7.26		
Major	Humanities · society	72(36.0)	37.55±5.69	0.72	.384
	Theology	28(14.0)	38.04±3.66		
	Arts	44(22.0)	37.26±4.06		
	Health science	56(28.0)	37.56±4.18		
Sex	NO	5(2.5)	39.87±9.86	-3.20	.001
	Yes	195(97.5)	36.88±6.49		
Violence of girl friend	NO	174(87.0)	39.99±9.56	-2.71	.001
	Yes	26(13.0)	35.89±4.56		

<Table 2> Degree of Self-esteem, Family violence, Sexual Assertiveness, Permissive of Levels of Dating,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n=200)

Categories	Items	M ± SD	Min~Max	Ranges
Self-esteem	10	3.56±0.37	1.00~4.00	1~4
Family violence	10	2.62±0.64	1.00~5.00	1~5
Sexual Assertiveness	14	3.28±0.69	1.00~4.00	1~4
Permissive of Levels of Dating	8	2.08±0.89	1.00~4.00	1~4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10	4.261±0.36	1.00~5.00	1~5

<Table 3> Degree of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 (n=200)

Variables	Self-esteem	Family violence	Sexual Assertiveness	Permissive of Levels of Dating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r(p)	r(p)	r(p)	r(p)	r(p)
Self-esteem	1	-.43 (<.001)	.32 (<.001)	-.46 (<.001)	.58 (<.001)
Family violence		1	-.28 (<.001)	.47 (<.001)	-.52 (<.001)
Sexual Assertiveness			1	-.31 (<.001)	.38 (<.001)
Permissive of Levels of Dating				1	-.40 (<.001)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1

### 3.4 대상자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트 성폭력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던 자아존중감, 가정 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허용도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교경험과 이성 친구에게 폭력 가해 경험을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설정 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검정하기 위해 Dubin-Watson 값을 구하였고, 분석 결과 1.688오차로 오차의 자기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789로 0.1이상을 보였고, 분산 팽창 인자(VIF)값은 모두 1.598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의 모형 검증 결과는  $F = 48.95(p < .001)$ 로 회귀선 모델에 적합하였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n=200)

Variables	B	$\beta$	t	p
constant	1.349		2.145	<.001
Self-esteem	.456	.430	5.340	<.001
Family violence	.468	.456	5.320	<.001
Sexual Assertiveness	.540	.356	4.698	<.001
permissive of Levels of Dating	.315	.265	3.652	<.001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356	.169	2.561	<.001
Sex	-.016	-.429	-5.66	<.001
Violence of girl friend	-.189	-.201	-2.30	<.001

Adj.R<sup>2</sup>=.5408, F=48.95 p<.001

대상자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가정 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 성교경험, 이성 친구에게 폭력 가해 경험의 순으로 전체 5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Table 4>.

##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인식태도를 형성하는 데이트 폭력의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자아존중감 정도의 평균평점은  $3.56 \pm 0.37$  (척도 범위: 1~4)으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Kim & Park[21]의 연구에서  $3.25 \pm 4.05$ 로 나타나 본 연구가 높게 측정되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Kang[20]의 연구에서는  $3.91 \pm 0.47$  (척도 범위: 1~5)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데이트 성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도 하며, 데이트 성폭력을 행사한다고[20]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은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되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며 데이트 성폭력 인식을 높여주는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폭력 경험 정도의 평균평점은  $2.62 \pm 0.64$  (척도 범위: 1~5)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살펴본 연구가 없어 정도에 대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을 본 Lee[14]의

연구에서는  $2.08 \pm 3.72$  (척도 범위: 1~4)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Lee[14]의 연구결과 모두 가정 폭력 경험이 중간정도의 크기를 나타냄에 따라 추후 같은 도구를 사용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가정폭력의 원인과 종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성적 자기주장 정도의 평균평점은  $3.28 \pm 0.69$  (척도 범위: 1~4)으로, Kim[15]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측정도구 개발당시  $3.03 \pm 0.36$ 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Kim[15]의 연구는 개발 당시 경험적 타당도 확보를 위해 후속연구를 많이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였고, Kim[15]의 연구에서 개발된 성적 자기주장 측정 도구와 데이트 성폭력 인식을 알아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반복 연구를 통해 성적 자기주장과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관계와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성적 자기주장과 데이트 폭력을 살펴 본 연구는 Kang[20]의 연구에서는  $4.04 \pm 0.48$  (척도범위 1~5)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고, 데이트 성폭력과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지만, Kang[20]은 남녀 대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성적 자기주장 도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 사용하였기에, 본 연구가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성적 자기주장 도구를 사용하여 남자 대학생이 지각하는 데이트 폭력 인지도를 알아본 연구이기에 연구적 의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 정도의 평균평점은  $2.08 \pm 0.89$  (척도 범위: 1~4)로 나타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ang[17]의 연구 결과 평균  $13.76 \pm 3.96$ 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Kang[20]의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을 비교하여 남자가 여자 보다 폭력 허용도가 더욱 높음을 시사하였고, Nam[16]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더 폭력에 수용적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폭력 허용도도는 폭력의 가해와 피해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폭력이 허용 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가 나타남에 따라 이성교제 시 폭력 허용도를 낮추며, 데이트 성 폭력 인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정도의 평균평점은  $4.26 \pm 0.36$  (척도 범위: 1~5)로 나타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ang[20]의 연구 결과 평균  $37.25 \pm 7.03$ 보다 본 연구가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Kang[20]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인식도가 낮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은 데이트 상황에서의 성적 행동들이 데이트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 하지 못하기 때문에[25] 데이트 상황에서 성폭력 가해 행동을 할 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트 성폭력을 인식하는 관련 요인들을 알아봄으로 연구적 의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인식은 성교경험( $t = -3.20, p = .001$ ), 이성 친구에게 폭력 가해 경험( $t = -2.71,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성교경험이 없는 군이 성교경험이 있는 군보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선행 연구[20, 28]를 뒷받침 하는 결과이며, 성교경험에 노출이 될수록 데이트 상황에서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성 친구에게 폭력 가해 경험을 가진 남학생은 폭력 자체를 허용적으로 느끼고, 문제 해결 방안으로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선행연구[13]를 뒷받침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인 성교경험, 이성 친구에게 폭력 가해 경험과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데이트 성폭력 인식을 함양하며, 데이트 성폭력을 줄이는 중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자아존중감 관계는 ( $r = .58, p < .001$ ),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가정폭력 경험 관계는 ( $r = -.52, p < .001$ ),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성적 자기주장 관계는 ( $r = .38, p < .001$ ),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이성교제 폭력 허용도 관계는 ( $r = -.40, p < .01$ )와 같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데이트 성폭력의 선행연구 뒷받침 하고 있으나[20, 28] 본 연구와 같이 5가지 변수를 모두 함께 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었다고,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 관련 변인을 본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와 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확인함으로써 데이트 성폭력 인식 허용도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예상하며 데이트 성폭력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자아존중감, 가정폭력 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허용도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성교경험, 이성교제 폭력 가해 경험은 집단의 차이검증과 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 데이트 성폭력 인식의 예측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예측 변수에 대한 폭 넓은 연구를 통하여 남자 대학생이 지각하는 데이트 폭력 인식도를 개선하며, 더 나아가 데이트 폭력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중재 방안과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 가정 폭력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허용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가정 폭력경험, 성적 자기주장, 이성교제 폭력허용도, 성교경험, 이성교제 폭력 가해 경험이었으며 전체 54%로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과의 각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영향요인 규명을 통해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를 남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데이트 성폭력의 주 가해자가 남성이며, 대학생의 시기는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구적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데이트 성폭력의 심층적 접근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의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인식을 조사 하였 기에 모든 지역의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추후 확대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연구 결과 중 일반적 특성에서 성교경험이 없는 학생의 수가 최소사례의 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더 나아가 데이트 성폭력 인식을 향상시켜 데이트 폭력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며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G. J. Nam, "Dating Violence", <http://www.police.go.kr>. (March 4. 2016)
- [2] Y. H. Oh,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Motives for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Dating Violence of College: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master's thesis, Chengbuk University. 2016.
- [3] Anderson, K. M., & Danis, F. S. "Collegiate sororities and dating violence: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l and formal helping strategies", *Violence Against Women*, Vol. 13, pp. 87-100. 2007.
- [4] H. S. Kang, E. S. Lee, "Predictive Factors for Perpetrations of Dating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23. No. 4, pp.288-298, 2014.
- [5] R, M, Bossarte, T, R., & Simon, M, H, Swahn, "Clustering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peer violenc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23, No. 6, pp.815-833. 2008.
- [6] J. H. Wee.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Maturity Variables and Sexual Attitude, the awareness on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s"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2014.
- [7] K. A. Chung, J. H. Cho,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143-155, 2015.
- [8] S. Y. Park, K. Y. Park, "Correlation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255-261, 2015.
- [9] M. J. Kim, "Study on counter measures of criminal justice process against crime of domestic violence",



-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2014.
- [10] H. J, "Sexual violence Counseling Statistics", <http://www.hotline.or.kr:41759/board/statistics/25615>. (April 1. 2016)
- [11] H. S. Lee,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doctorate thesis, Silla University, 2016.
- [12] M, S,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at school and mental health, sexual attitudes among male, female adolescents",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2003.
- [13] N, Y,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xual violence severity and negative life attitude on the mental health",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2.
- [14] B. M.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Male University students", doctorate thesis, Kosin University, 2017.
- [15] H. M. Nam, "A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2.
- [16] K. H. Seo, K. S. Lee, "Anger, psychoticism and addiction in dating violence inflictors and recipi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7, No. 3, pp.353-36, 2002.
- [17] E. H. Kim, G. Y. J, "The Ecological Variables Affecting Adolescent's Sexual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5, No. 7, pp.71-91, 2007.
- [18] Y. H. Kim, G. Y. J, "Effect of Sexual Autonomy, Sexual Assertiveness, Sexual Subjectivity on Sexual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26 No. 6, pp.1332-1341. 2014.
- [19] H. S. Kang, "Model Construction of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Female college Students", doctorate thesis, Chonnam University, 2009.
- [20] W. K. Nam, "A Study on Experiences and Factors of Sexual Violence While Dating among Unmarried Men in Busan",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2008.
- [21] B. M. Kim, J. S. Park,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for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Woman Health Nursing*, Vol. 21, No. 1, pp.11-22, 2015.
- [22]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1, No. 4, pp.1149-1160, 2009.
- [23]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24] B. J. Jeon, "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The Journal of Yonsei ol*. 11. pp.109-129, 1974.
- [25] Straus. M, A, "The conflict tactics scale and its critics: An evaluation new data on validity and reliability",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Brunswick, pp.49-71. 1985.
- [26] Sugarman. D. B, "Risk marker analysis of husband-to-wife violence: A continuum of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6 No. 4, 1986.
- [27] Foo L, & Margolin G. "A multi 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10, No. 4, pp.351-377, 1995.
- [28] J. Y. Lee, E. S. Lee,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7, No. 2, pp.419-436. 2005.

김 보 미(Kim, Bo Mi)



- 2014년 2월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경북전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모성, 아동, 스트레스
- E-Mail : point99930@naver.com